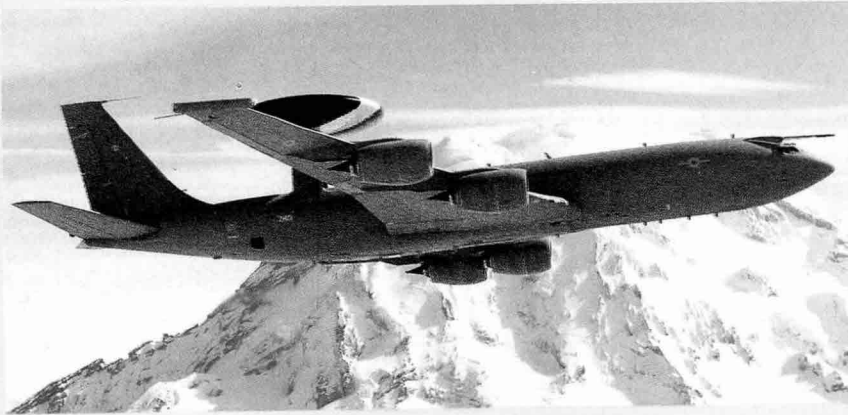




F-15 이글(Eagle) 전투기는 開戰초기에 F-117 스텔스기와 함께 이라크 영공을 완전히 유린하였다



「하이테크 전쟁」이라 불리우는 이번 걸프전쟁에서 최첨단장비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사진의 AWACS기는 이라크 및 쿠웨이트지역내 모든 전장 정보를 다국적군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탑재되어 있는 CC-1 컴퓨터는 최대 6백개의 표적을 탐지하며, 2백개의 표적에 대해 피아식별과 추적이 가능하다

**걸프**

**화보**

걸프(Gulf) 戰에 등장한 최첨단 장비  
 “사막의 폭풍” 작전과 하이테크 전쟁

영국의 해리어(Harrier) 전투기는 다국적군의 F-117, F-15, F-14, F/A-18 등과 함께 이라크 공습의 주역이 되고 있다





이번 걸프전쟁중 예상되는 地上戰에서 「전천후 전자킬러(Tank-Killer)로 명성을 날릴 것으로 보이는 AH-64 아파치(Apache) 대전차용 공격 헬기. 최신 전자 레이저기술을 이용한 여러 탐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기억회로내에 목표물에 대한 각종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주요 무장으로는 헬파이어(Hellfire) 대전차 유도탄(16발)과 분당 6백 25발을 발사하는 30밀리 기관포, 70밀리 로켓탄(19발) 등이 있다. AIM-9 사이드와 인더 공대공 유도탄을 추가로 장착할수 있다 대당 가격이 약 72억원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챌린저(Challenger) 전차는 눈 앞으로 다가온 地上戰에서 미국의 M1A1 전차와 함께 다국적군의 주력으로 운용될 것이다



미군의 M1A1 에이브람스(Abrams) 전차는 120밀리 주포와 화생방전에 대한 완벽한 방호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약 17억3천만원)

